



代讀하는 李鳳順專務理事

## 圖書館을 重要視하는

社會가 되어야 한다

會長 李 琦 根

오늘 第14回 全國圖書館大會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參席하신 內外 貴賓 여러분, 그리고 圖書館界同志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시고 먼 距離임에도 不拘하고 이렇게 많이 參席하여 주신데 대하여 深甚한 感謝를 드립니다.

오늘 날 經濟發展이 推進됨에 따라서 多樣한 知識의 開發이 要求되고 이를 賯藏하고 傳播하는 知識產業이 크게 發展하는 것은 世界的 趨勢입니다. 오늘의 機械文明은 冊과 施設과 人間의 두뇌가 합쳐 얻어지는 產物이며 이러한 意味에서 精神資源의 開發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精神的 뒷받침을 소홀히 한近代化의 努力은 限界性을 드러내게 될 것이며 이론 바 落後의 處地를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특히 人知가 發達할수록 教育年限이 길어짐은 그만큼 次元높은 精神資源이 必然的으로 要請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精神的 資源은 이를 保存하여 活用하게 하는 圖書館을 通해서 開發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社會가 매우 專門化 内지 細分化되어 가고 있음에 따라서 圖書館奉仕는 學校教育과 社會教育은 勿論 모든 知識情報의 普及하는 社會의 基本의役割을 擔當하고 있습니다. 近代化를 서두르고 있는 우리 社會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圖書館奉仕가 重要視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社會에서는 아직 嚴格한 意味에서 圖書館奉仕의 重要性을 認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社會는 精神資源 開發의 重要性이 強調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여기에 대한 投資는 至極히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땅을 파라면서 팔 연장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안타까운 現實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社會的 與件을 打開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에 對處하는 圖書館人들의 보다 能動的인 자세가 必要할 것입니다.

우리 圖書館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問題들이 山積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指摘할 수는 없으나 가장 重要한 例를 들어 본다면 圖書館 發展의 基本이 되는 圖書館法이 制定된지 十餘年이 지났으나 그간 現實에 맞는 法改定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한나라 圖書館 發展의 基準이 되는 公共圖書館 역시 貧弱하기 이를 데 없는 매우 한심한 實情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問題들을 눈앞에 놓고 있는 우리 圖書館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集約된 能力의 發揮가 必要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번 國際會議에 보여준 圖書館界의 團合된 힘의 誇示를 繼續 倍加하여야 하겠습니다. 모조록 이번 全國圖書館大會를 通하여 우리 圖書館界에 새로운 活力素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새로운 方案이 마련되도록 努力하여 주시기를 여러분들께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 개최된 國際會議時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아낌없는 後援을 베풀어 주신 文敎當局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재삼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全國圖書館大會를 主管하여 모든 準備를 하시느라고 手苦하신 유진 C. 콜래쉬 西江大學 圖書館長님과 職員 여러분들의 勞苦를 致賀하며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